



숲이 깨어나고 꽃이 피면
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.

새로 태어날 새 생명을
설렘으로 기다리며



친구들과 준비한 숲의 향연에

생기 가득 연녹색 이파리로
사람들을 초대해요.



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내며
내일을 향해 함께 꿈을 키워가고



큰 키와 짙은 뺨은 튼튼한 팔은
추억을 만드는 일에 기꺼이 내어주어요.



푸른 밤하늘을 바라보며
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의 이야기를
나누기도 해요.



숲 내음 가득한 산길은
어른들의 고단한 마음을 감싸며
위로해주시요.

무심하게,
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지만



사람들을 기억하고, 추억하며
설렘으로 내일을 기다리는
나는 숲속, 특별한 나무입니다.